

#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49호 (2014-28) 발행일 : 2014. 07. 18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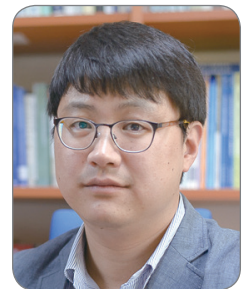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사회적 신뢰와 같은 핵심적인 사회적 자본 형성에 제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 보았음

단순 기술분석과 로짓분석 그리고 비모수적인 매칭 방법을 통한 효과성 평가 모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집단보다 비수급 집단의 사회적 신뢰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매칭분석 결과에서 관찰 불가능한 시간불변의 교란항을 제거하면, 근로능력에 따라 구분된 집단들의 경우 수급자들의 사회적 신뢰수준이 비교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집단의 사회적 신뢰 제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하며, 성과를 한 시점의 자료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정책 수행의 시간경과에 따라 사회적 신뢰에 대한 효과성이 가변적이라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음



임완섭  
사회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1. 들어가는 글

-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신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을 협조된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특성들로 보았음

\* 본 원고는 '임완섭(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신뢰 제고 효과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41권 제2호, pp.109-134.'의 내용을 발췌 및 수정함(자세한 참고문헌은 위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신뢰는 ‘일반화된 신뢰’, ‘대인 신뢰’ 등으로 지칭되는 사회적 신뢰로서<sup>1)</sup>, Coleman(1990) · Knack and Keefer(1997) · Algan and Cahuc(2010) 등의 연구에서 경제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개인 소득 또는 국가의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sup>2)</sup>

■ 본 연구는 개인수준의 사회적 신뢰 결정요인과 매칭방법을 통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회적 신뢰 제고효과를 측정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러한 접근방법을 택한 이유는 사회적 신뢰와 그 원인으로 선택된 변수들 사이에는 상호인과성으로 인한 내생성(endogeneity) 문제와 함께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 따라서 모수추정방식의 결정요인 분석과 함께 내생성의 문제를 우회하고 선택편의를 줄일 수 있는 비모수적 매칭방법을 통한 효과성 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사회적 신뢰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함

## 2. 사회적 신뢰의 특성

■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호혜성(norm of reciprocity), 일반화된 신뢰로 구성된 사회적 관계에 집중된 개념이며(Bhandari & Yasunobu, 2009), Coleman(1990), Putnam(1993)에 의하면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집합체적 특성을 가지게 때문에 개인 속이 아닌 개인들 간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음<sup>3)</sup>

○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현재 사회과학 전반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에 대한 연구도 폭넓게 수행되어지고 있음

- 신뢰는 사회적 자본인 동시에 다른 유형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며, 경제 주체들 간의 다양한 유형의 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행위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음<sup>4)</sup>

- Zucker(1986)는 신뢰를 역사적 분류에 따라 과정 의존적 신뢰, 특정 의존적 신뢰, 제도 의존적 신뢰로 구분 하였음. 과정 의존적 신뢰는 반복적인 신뢰를 통하여, 특정 의존적 신뢰는 귀속적 특성에 기반하여, 제도 의존적 신뢰는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 신뢰가 형성됨. 현대 사회로 들어와서는 제도 의존적 신뢰는 강화 되고 다른 두 개의 신뢰들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음<sup>5)</sup>

- 현대사회에서는 사적인 접촉 확대를 통한 일반적 신뢰의 구축은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제도 의존적 신뢰는 사회적 신뢰의 증가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파악되기도 함(박찬웅, 2000; 김신영, 2010)

■ 사회적 신뢰의 측정

○ 사회적 신뢰의 특성과 구조는 복잡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매우 어려우며, 측정 자체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고 있음

1) 이병기(2009).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신뢰의 정책적 함의. 한국경제연구원  
 2) 이동원(2013). 사회신뢰의 결과와 원인.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Working paper. 2013.8. 재인용  
 3) 박종민 · 김왕식(2006). 한국에서의 사회신뢰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호. 재인용  
 4) 박찬웅(2000). 사회적 자본, 신뢰, 시장: 시장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 발표문  
 5) 박찬웅(1998) 재인용, 배영(2012) 재인용

-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국제적인 인식조사의 대인신뢰 여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것을 합산한 수치를 활용하여 사회적 신뢰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 및 국가간 비교에 집중하고 있음
  - 대표적인 조사에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네트워크인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World Values Survey(WVS)가 있음. WVS는 5년에 걸친 웨이브 모두에서 “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need to be very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 라는 질문을 통해 응답자들에 대한 대인신뢰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 질문에 대한 응답은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 “매우 조심해야한다”이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신뢰의 수준은 국가별 구성원들의 대답을 합제한 수치의 비율을 사용함. 즉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응답한 경우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처리한 후 합산하여 응답자수로 나누어 주는 방식을 활용함
- 국내의 유사한 조사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경우 WVS의 방법을 준용하여 정기적으로(1차·4차·7차 연도) 설문을 실시하고 있음

### 3. 분석방법

#### ■ 분석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의 사회적 신뢰 제고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
  - 한국복지패널은 개인과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소득과 지출 그리고 각종 복지제도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종단면 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조사로, 2013년 현재 8차까지 조사가 완료됨
  - 본 연구는 가구와 개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가구와 개인의 결합자료를 활용함
- 신뢰에 대한 설문 결과는 복지패널 1차, 4차, 7차 조사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4차와 7차 자료를 활용
  -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1차 자료의 결과가 4차 및 7차 자료의 결과와 큰 차이가 있으며, 1차 조사와 2~7차 조사 수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3개 차수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기 보다는 해당 변수에 대한 안정적인 분석을 위해 1차 조사를 제외한 4차와 7차 조사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표 1〉 조사별(1차, 4차 7차) 대인신뢰 여부 결과 (단위 : %)

설문	Wave	1차	4차	7차
1.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		43.3	53.3	50.6
2. 매우 조심해야 한다		45.8	39.0	44.4
3. 잘 모르겠다.		11.0	7.7	5.1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복지패널 1차, 4차, 7차 자료

#### ■ 사회적 신뢰 결정요인 분석에 활용된 변수

- 종속변수로는 응답자의 대인신뢰 여부가 활용되었으며, 설명변수에는 개인 및 가구 특성 변수들과 함께 제도 효과성 파악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가 투입됨

〈표 2〉 사회적 신뢰 결정요인에 사용된 변수와 내용

종속변수	사회적 신뢰(대인신뢰)		신뢰= 1, 신뢰하지않음 =0 (매우 조심해야한다 or 모르겠다)
독립변수	개인 특성	성별	남성 =1, 여성 = 0.
		연령	연령
			연령*연령
		학력수준	초졸이하 = 1, 중졸 = 2, 고졸 =3, 대졸이상 = 4
		종교	있음 = 1, 없음 = 0
	인터넷 사용	1 = 사용함, 0 = 사용안함	
	가구 특성	혼인상태	유배우 = 1, 무배우 = 0
		아동수	가구내 18미만 아동수
		1차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사적이전	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로부터의 이전(민간보조제외)
	제도 효과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	수급 = 1, 비수급 = 0
		공적이전	사회보험 제외 각종 수당 및 공공부조 급여액의 합
	지역	거주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1, 도의 시 = 2, 도의 군 = 3
	기타	사업장 환경	위험 = 1, 그 외 = 0

■ 분석방법

- 먼저, 사회적 신뢰 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가 설명변수로 투입된 개인수준의 사회적 신뢰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함
  - 하지만 모수추정 방식의 결정요인 분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와 종속변수인 사회적 신뢰여부의 상호인과성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와 함께 선택편의의 문제가 발생됨
  - Heckman, Ichimura, Smith and Todd(1988)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택편의의 문제에 있어 관측 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편보다 관측되는 요인들의 분포 및 비교집단과의 이질성으로 인한 편의발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김용성 외, 2007 재인용)
- 비모수적 방식의 매칭방법을 통한 효과성 평가의 경우 내생성의 문제를 우회하면서도 선택편의를 축소시킬 수 있음. 매칭을 통해 처리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분석방법은 준실험적 연구방법(quasi-experimental method)으로 분류됨
  - 준실험적 방법은 무작위 할당을 통한 비교집단 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참가자인 처리집단과 프로그램 참가여부 외에 모든 특성이 거의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집단간 성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임<sup>6)</sup>
  -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매칭(matching)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추정방법인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이용한 매칭 방법을 적용하였음
- 성향점수 매칭은 프로그램에 참가한 처리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모두 포함된 표본을 구성한 후 로짓 또는 프라빗 모형을 통해 참가기대확률을 추정하여 성향점수로 활용함
  - 본 연구에서는 이항로짓(Binary Logit) 모형과 함께 이항결정모형에 다층분석을 적용한 멀티레벨로짓(Multilevel Logit) 모형을 적용하여 성향점수를 추정함

6) 노화준(2001). 정책평가론. 법문사; 임완섭(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수급자와 노동공급. 제2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재인용

- 다층자료분석을 통해 종속변인 분산에 대한 하위수준 변인들의 영향 정도와 상위 수준 변인들의 영향 정도를 구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기존 회귀분석이나 분산분석이 해결하지 못한 분산의 단위 문제, 회귀계수의 변산(variation), 공분산 요인, 층위간 상호작용, 신뢰구간 추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음<sup>7)</sup>
- 본 연구는 지역수준<sup>8)</sup>에 따라 절편이 달라지는 임의절편(random intercept model) 모형을 적용함<sup>9)</sup>

## 4. 분석결과

### ■ 기술분석

○ 복지패널 4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변수별 사회적 신뢰의 응답분포를 살펴보았음

- 이러한 분석은 사회적 신뢰 수준을 명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직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지만 단순한 기술 분포이기 때문에 심층적인 특성과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음
- 아래 표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3.3%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 라고 응답함.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집단의 경우 전체평균보다 약 0.5%p 높은 53.8%를 나타내었지만, 수급 집단의 경우 전체평균보다 11.9%p 낮은 41.4%를 나타냄
- 변수 세부항목 기준으로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을 비교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수급집단이 수급집단보다 사회적 신뢰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렇지 않은 경우는 초졸이하의 학력인 경우, 사별·이혼·별거의 경우, 장애인인 경우밖에 없었음

〈표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신뢰분포: 주요변수별 (단위: %)

구분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성별	여성	51.7	43.4	52.0
	남성	55.1	39.0	55.6
연령대	20대이하	51.1	29.9	51.7
	30대	55.1	35.1	55.4
	40대	59.0	47.6	59.4
	50대	51.3	42.5	51.7
	60대이상	48.4	43.1	48.8
학력	초졸이하	45.0	45.4	45.0
	중졸	47.6	28.9	48.8
	고졸	52.3	44.5	52.5
	대졸이상	61.1	26.1	61.4
결혼상태	유배우	55.3	40.9	55.6
	사별,이혼,별거	47.5	48.0	47.4
	미혼	50.4	30.5	51.2
장애여부	비장애인	53.7	37.6	54.1
	장애인	48.8	50.4	48.4
장기질환여부	장기질환 없음	54.6	44.1	54.8
	장기질환자	50.6	40.1	51.4
취업여부	비취업자	49.7	40.4	50.4
	취업자	55.6	44.0	55.8

자료: 한국복지패널 4차 자료

7) 이윤경, 2009; 강지원·임완섭, 2012 재인용

8) 지역구분 변수는 5개 권역별 지역구분(1.서울, 2.광역시, 3.시, 4.군, 5.도·농복합군)을 변수 값을 활용함.

9) 상세한 설명은 민인식·최필선(2012)의 "멀티레벨 모형", 이성우 외(2006)의 "Random Coefficient Model" 부문 참조바람

〈표 3〉 계속

(단위: %)

구분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경제활동상태	상용 및 임시근로자	57.0	42.3	57.1
	일용 및 무급가족	51.1	45.3	51.5
	고용 및 자영업자	54.8	41.7	54.9
	실업자	48.8	38.1	49.4
	비경제활동인구	49.8	40.4	50.5
종교유무	종교 없음	53.8	39.1	54.3
	종교 있음	52.8	43.5	53.2
지역	서울	52.2	40.0	52.5
	광역시	53.3	40.5	53.9
	시	53.6	39.6	54.0
	군	54.8	53.1	54.9
전체		53.3	41.4	53.8

자료: 한국복지패널 4차 자료

■ 로짓분석을 통한 인과관계분석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에서 수급자인 경우 전체집단 또는 근로능력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 라고 응답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개인수준의 사회적 신뢰 결정요인(Binary Logit) 추정결과

종속변수(신뢰=1)	집단 구분								
	전체			근로능력 있음			근로 미약 및 없음		
설명변수	Coef.	S.E.	dy/dx	Coef.	S.E.	dy/dx	Coef.	S.E.	dy/dx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	- 0.239**	0.103	- 0.060	- 0.290**	0.148	- 0.072	- 0.151	0.149	- 0.037

주 : \*\*\* p < 0.01, \*\* p < 0.05, \* p < 0.

자료: 한국복지패널 4차 자료

■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한 효과성 평가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에 대한 Binary Logit과 Multilevel Logit 분석을 한국복지패널자료에 적용하여 성향점수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의 사회적 신뢰 제고 효과를 측정함

- 성향점수 추정 후에 최근거리이웃(nearest-neighbor) 매칭과 커널매칭(Kernel Matching)을 통한 비교 집단 구성을 통해 처리집단에 대한 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를 구함

○ 먼저, 최근거리이웃(nearest-neighbor) 매칭을 활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대상에서 비교집단의 사회적 신뢰수준이 처리집단의 사회적 신뢰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집단에서 성향점수 추정에 이항로짓을 활용한 경우 사회적 신뢰수준은 처리집단이 비교집단보다 5.4%p 낮은 것으로, 멀티레벨로짓을 활용한 경우 처리집단이 7.5%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근로능력자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멀티레벨로짓을 활용한 ‘근로능력 미약 또는 없음’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이러한 결과는 커널매칭(Kernel Matching)을 적용한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단, ‘근로능력 미약 및 없음’ 집단중 이항로짓을 적용한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표 5〉 처리집단에 대한 평균처리 효과 1: 최근거리이웃 매칭

구분	추정방법	처리집단(A)	비교집단(B)	(A) - (B)	S.E.	T-stat
전체	Binary Logit (n=668)	0.428	0.482	- 0.054	0.027	-1.98**
	Multilevel (n=504)	0.415	0.490	- 0.075	0.031	-2.41**
근로능력	Binary Logit (n=298)	0.386	0.503	- 0.117	0.040	-2.90***
	Multilevel (n=195)	0.400	0.508	- 0.108	0.050	-2.14**
근로능력 미약 및 없음	Binary Logit (n=328)	0.442	0.561	- 0.119	0.039	-3.06***
	Multilevel (n=219)	0.443	0.516	- 0.073	0.048	-1.53

주 : \*\*\* p < 0.01, \*\* p < 0.05, \* p < 0.

〈표 6〉 처리집단에 대한 평균처리 효과 2: 커널매칭

Variable	추정방법	처리집단(A)	비교집단(B)	(A) - (B)	S.E.	T-stat
전체(n=755)	Binary Logit	0.430	0.512	- 0.082	0.019	- 4.19***
	Multilevel	0.430	0.501	- 0.071	0.020	- 3.49***
근로능력자(n=348)	Binary Logit	0.402	0.517	- 0.114	0.027	- 4.17***
	Multilevel	0.402	0.496	- 0.094	0.028	- 3.31**
근로능력 미약 및 없음 (n=407)	Binary Logit	0.455	0.507	- 0.053	0.028	- 1.86
	Multilevel	0.455	0.509	- 0.054	0.030	- 1.82

주 : \*\*\* p < 0.01, \*\* p < 0.05, \* p < 0.

○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제도의 시간 경과로 인한 효과성 변화에 대한 고려와 시간불변의 관측되지 않은 교란항을 제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함

-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에 속한 각각의 분석단위 중 2008년과 2011년 모두에서 관측되는 케이스의 분석 결과를 아래 표에 제시함

■ 이중차이 분석 결과

○ 근로능력 여부로 집단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샘플에서는 비교집단의 사회적 신뢰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로능력 여부로 구분한 경우 이항로짓과 멀티레벨로짓 두 경우 모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집단인 처리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회적 신뢰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능력 여부를 기준으로 한 층화를 통해 매칭의 정확성이 높아짐에 따라 처리집단의 성과측면이 제고되어 전체샘플과 근로능력 여부로 구분한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7〉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이중차이 분석

		집단구분	4차	7차	7차 - 4차	이중차이
Nearest Neighboring Matching 적용						
전체	Logit	처리집단	43.6%	41.1%	- 2.5%	- 1.2%p
		비교집단	48.0%	46.7%	- 1.3%	
	Multilevel	처리집단	43.5%	43.0%	- 0.5%	- 0.7%p
		비교집단	49.4%	49.6%	0.2%	
근로능력자	Logit	처리집단	37.6%	36.8%	- 0.8%	5.3%p
		비교집단	50.2%	44.1%	- 6.1%	
	Multilevel	처리집단	41.9%	38.1%	- 3.8%	1.9%p
		비교집단	54.7%	49.1%	- 5.7%	
근로미약 및 없음	Logit	처리집단	46.6%	47.4%	0.8%	2.0%p
		비교집단	54.1%	52.9%	- 1.2%	
	Multilevel	처리집단	48.2%	47.6%	- 0.6%	0.0%p
		비교집단	51.9%	51.4%	- 0.6%	

## 5.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사회적 신뢰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위해 모수추정 방식의 결정요인 분석과 함께 내생성 문제를 우회하고 선택편의를 축소시키기 위한 비모수적 방식의 매칭방법을 적용함
  - 분석결과, 단순 기술분석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신뢰수준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신뢰의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설명변수로 투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의 경우 사회적 신뢰에 대해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비모수적 방식의 매칭방법을 적용한 분석결과에서도 처리집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모든 부분에서 비교집단보다 사회적 신뢰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시간불변의 교란향을 제어하기 위해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로능력 여부로 분류한 경우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미약 및 없음), 처리집단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집단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비교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이 수급집단의 사회적 신뢰형성에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정책성과를 한 시점의 자료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시간을 고려한 평가 방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분석 방식이 무엇이 되었든 내생성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거시자료 및 좀 더 풍부한 인식관련 자료를 활용해야 사회적 신뢰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음
  - 향후 국제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부조제도와 신뢰형성의 인과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으며, 한국복지패널 등 국내 주요 실태조사에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설문문항이 추가된다면 사회적 신뢰 등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자료와 관련 연구가 확대된다면 사회정책의 효과성 연구가 사회적 의식 측면까지 확장되어 향후 기존 정책의 방향성 설정 및 새로운 제도 설계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됨

집필자 | 임완섭 (사회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문의 | 02-380-8272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